

산업위생의 35년을 회고하면서



前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안 규 동

이제, '정년'이라는 사건을 만나기까지의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1973년 7월 1일자로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고인이 되신 이광묵 교수로부터 산업보건업무라는 일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해서 한달을 보낸 후 간단한 분석기기 몇 점을 준비하고 또 몇 가지 측정기기를 예방의학교실에서 빌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보건센터로 내려가 일을 시작하였다.

직접 이광묵 교수가 마산센터로 오셔서 약 3달간 기본적인 산업보건업무를 가르쳐 주셨는데 당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양식, 특수건강진단 검진 chart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JIKA(당시는 OTCA)의 원조로 상당 수준의 분석기기, 측정 장비도 도입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우리나라 산업보건기관에서 아마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었고 또 산업보건에 관한 책도 많이 지원 받아 정말로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또 사업장에서 협조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어서 그 때는 산업보건사업이라는 것을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1987년 정부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발족하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동료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나도 1988년 순천향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산업보건업무를 배운 곳,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조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겨 다시 이 일을 하게 되어 남들은 다 잘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는데 실제로 나는 학교가 그렇게 산업위생을 하기에 좋은 직장
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물론 젊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공장에서 근로자들
도 만나면서 산업보건에 관한 내용을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었으니
아주 나쁜 곳은 아니었지만 역시 학교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것에 매달려야
하니 실제로 산업현장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산업보건사업이란 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문제에 접근
하여 그 해답을 찾는 것인데, 기실 학자들은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 실제적 접근은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전문가란 소리를 듣는 사
람들인 것이다. 실제로 학자들이 하는 산업보건사업이란 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
는 드물고,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산업현장 실
정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보
건의 현장이 실제로는 무시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보건 전문가들조차도 조금은 학자
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 내어, 조금 나쁘게 말하면 돈 되는, 상업성이
큰일만을 관심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보건사업이라는 것은 학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실천이
중요하며, 이론보다는 실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
다. 산업보건사업을 함에 있어 선진국의 좋은 예를 받아들여 선진국처럼 근
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근로자들의 삶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
어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것도 그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조건에 맞
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선진국의 생활환경에 맞
추어진 산업보건을 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
면 처음에 나도 부러웠다. 하루 동안 산업현장에 나아가서 일하면 몇 만불에
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하여 나도 그러한 위치에서 일해 보는 것이 한 때는
꿈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러한 일을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보고
서를 보고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지불되어

야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도 아니었고, 단지 상업성이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산업보건사업의 내용이란 현장을 열심히 관찰하고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이해한 바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책 몇 권 읽어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에 옮겨본 들 그렇게 알찬 내용이 될 리는 없다. 그리고 산업위생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첨단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학문도 아닌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만나서 일어난 일의 찌꺼기를 설거지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문제해결책인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면 산업보건, 산업위생 역시 인간들의 하나의 문화현상인 것이다. 그 인간들이 문화현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해결의 일일 뿐 첨단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또 다른 하나의 문화현상을 만드는 작업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제도를 아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로써 산업위생이나 산업보건사업이 완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헌법과 의료법이라는 것을 보니 그 나라야 말로 법으로 국민의 고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로자가 일하다 부상을 당하여도 실제로 아무 소용도 없는 문자만이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완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고에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지배자 위치로 군림하려는 속셈이 분명한 경우를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다. 산업보건이나 산업위생에 관한 사업은 현재의 상황에 알맞은 범위에서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호화로운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지배층을 키우는 그러한 일은 이제 그만 하였으면 한다. ☹️